

高陽市史

제2권

문화유산과 인물



고양시사편찬위원회

제1절 문화재의 개념

1. 개설¹⁾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책도 『고양시사』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고양시민만의 책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료이다. 문화유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문화유산 항목에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문화유산만을 분류기록 하였다. 문화재는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확인을 못한 채 기록만으로 대체한 일도 발생하였다. 종전에 발간된 책자에 없는 것도 가능한 한 발굴하려고 하였으며, 새로 조성된 문화유산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 고양시 문화재 현황

문화재청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각 유형별 문화재 지정 상황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1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67),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1983), 『문화재관리관계법령집(文化財管理關係法令集)』(문화재관리국, 1973), 『무형문화재총람(無形文化財總覽)』(박진주·심우성, 민학사, 1975),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한국문화재보호협회(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76), 『동산문화재관리편람(動山文化財管理便覽)』(문화재관리국, 1978).

1) 고양시 문화재 현황

지정여부	지정주체별	유형별	분류	수량
지 정 문 화 재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없음
			보물	2
		무형문화재	중요문화재	없음
		기념물	사적	6
			명승지	1
			천연기념물	2
	민속자료		없음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6	
		무형문화재	3	
		기념물	7	
		민속자료	1	
	시지정문화재	향토유적	45	
비지정	비지정			다수

2) 국보(국가지정 문화재)

없음

3) 보물(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611호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북한동15	1977. 8. 22	고려말
제749호	태고사 원증국사탑(부도탑)	북한동15	1983. 12. 27	고려말

4) 국가 사적(국가지정 문화재 → 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56호	행주산성	행주내동 산26	1963. 1. 21	삼국~조선

제144호	벽제관지	고양동 55~1	1965. 2. 2	조선
제162호	북한산성	북한동 산1~1	1968. 12. 5	삼국~조선
제191호	고려 공양왕릉	원당동 산65~1	1970. 5. 28	조선
제198호	서오릉	용두동 산30~1	1970. 5. 26	조선
제200호	서삼릉	원당동 산38~4	1970. 5. 26	조선

5) 천연기념물(국가지정 문화재 → 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60호	송포백송	덕이동 산207	1962. 12. 3	조선
제202호	두루미(단정학)	장항동 호수공원 내	1995. 6. 19	-

6) 명승지(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10호	삼각산	북한동 산1~1	2003. 10. 27	-

7) 경기도 유형문화재(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74호	행주대첩비	행주내동 산26	1978. 10. 10	조선
제87호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북한동 132	1979. 9. 3	조선
제143호	흥국사 극락구품도	지축동 203	1991. 10. 19	조선
제188호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부도	북한동 204	2003. 9. 8	조선
제189호	고양 흥국사 괘불	지축동 20	2003. 9. 8	조선
제190호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북한동 370	2003. 9. 8	조선

8) 경기도 무형문화재(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22호	송포호미걸이	주교동 전수회관	1998. 6. 22	-
제31-1호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주교동 전수회관	1999. 10. 18	-
제43호	금은장	화전동	2005. 2. 7	-

9) 경기도 기념물(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23호	최영 장군 묘	대자동 산70~2	1975. 9. 5	조선
제50호	유형 장군 묘	행신동 산106~2	1978. 10. 10	조선
제136호	북한산 증흥사지	북한동 259	1992. 12. 31	고려
제160호	북한산성 행궁지	북한동 169	1996. 7. 22	조선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문봉동 산34	2003. 9. 8	-
제195호	고양명절산유적	법곳동 740~22외 3	2004. 5. 17	-

10) 경기도 문화재자료(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57호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지축동 203	1985. 6. 18	조선
제64호	원흥동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	원흥동 산430~3 외 1	1985. 6. 18	신라~고려
제69호	고양향교	고양동 306	1985. 9. 10	조선
제71호	행주서원	행주외동 162~1	1986. 4. 30	조선
제79호	월산대군사당	신원동 427	1989. 12. 29	조선
제88호	연산군시대 금표비	대자동 산10	1995. 8. 7	조선
제104호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지축동 203	2001. 6. 12	조선

11) 민속자료(도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시대
제8호	일산 밤가시 초가	정발산동 1313	1991. 10. 19	조선

12) 향토유적(시지정 문화재)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제1호	월산대군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신원동 산16	1986. 6. 16
제2호	성녕대군 묘 및 신도비	덕양구 대자동	1986. 6. 16
제3호	계원군 묘 및 신도비	일산동구 성석동 산83~3	1986. 6. 16
제4호	이성군 묘	덕양구 대자동	1986. 6. 16
제5호	경안군 및 임창군 묘	덕양구 대자동 산645~1	1986. 6. 16
제7호	이천우 선생 묘 및 신도비	일산동구 성석동 삼감천	1986. 6. 16
제8호	민순 선생 묘 및 묘갈	덕양구 화전동	1986. 6. 16
제9호	이무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주교동 영글이	1986. 6. 16
제10호	김명원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관산동(두포동)	1986. 6. 16
제11호	정지운 선생 묘	일산서구 일산동 증산마을	1986. 6. 16
제12호	김전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원흥동 산40~1	1986. 6. 16
제13호	홍이상 선생 묘 및 신도비	일산동구 성석동 잣골	1986. 6. 16
제14호	이신의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도내동	1986. 6. 16
제15호	유여림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관산동	1986. 6. 16
제16호	이지신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향동동	1986. 6. 16
제17호	기준 선생 묘	덕양구 성사동 산47	1986. 6. 16
제18호	김주신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대자동 산26~1	1986. 6. 16
제19호	박세영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오금동 산121	1986. 6. 16
제20호	박대립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오금동 산121	1986. 6. 16
제21호	한계미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관산동 산87	1986. 6. 16
제22호	기건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성사동 산54	1986. 6. 16
제23호	기응세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성사동 산54	1986. 6. 16
제24호	김홍집 선생 묘	덕양구 대자동 산26~1	1986. 6. 16
제25호	한규설 선생 묘	덕양구 원흥동	1986. 6. 16
제26호	박충원 선생 묘 및 신도비	덕양구 주교동 산26~1	1986. 6. 16

제27호	강지 선생 묘	덕양구 오금동 산79	1986. 6. 16
제28호	유진동 선생 묘	덕양구 행신동 산119	1991. 6. 26
제29호	유림 선생 묘	덕양구 행신동 산119	1991. 6. 26
제30호	유구 선생 묘	덕양구 행신동 산106~2	1991. 6. 26
제31호	유겸 선생 묘	덕양구 행신동 산106~2	1991. 6. 26
제32호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덕양구 북한동 산1~1	1993. 4. 19
제33호	강매동 석교	덕양구 강매동 660~10	1999. 2. 1
제34호	한미산 흥국사 나한전	덕양구 지축동 203	1999. 2. 1
제35호	효자동 박대성 정려비 및 묘	덕양구 효자동 82~1	1999. 2. 1
제36호	도내동 은지 및 이축 선생 묘	덕양구 도내동 847~3	1999. 2. 1
제37호	심희수 묘 및 교지	덕양구 원흥동 산89	1999. 2. 1
제38호	권희 선생 묘	덕양구 성사동 산60~35	1999. 2. 1
제39호	이석탄 장대비	덕양구 도내동 산100~1	1999. 2. 1
제40호	풍동 당산목 및 산치성	일산동구 정발산동 1040~5	2005. 7. 29
제41호	정발산 도당굿	덕양구 성사동 494~14 대영빌라 104호	2005. 7. 29
제42호	성석 진밭두레패	일산동구 성석동 진밭마을회관	2005. 7. 29
제43호	황치신 신도비 및 묘소	덕양구 지축동 중고개	2005. 7. 29
제44호	익령군 이치 묘소	덕양구 성사동 244	2005. 7. 29
제45호	이규령 묘비문	덕양구 벽제동 344	2005. 7. 29

사·상리국총판·기기국총판을 거쳐 1887년에 형조판서에 이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이어 우포장·형조 판서·한성부 판윤·친군장위사·연무공원판리사무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1894년 총어사, 1896년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에 임명되어 사법집행의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립협회가 결성되자 활동에 호의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1898년에는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추원 의장으로 임명되고, 다시 법무대신으로서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의 탄압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게 되면서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1901년 궁내부 특진관에 이어 이듬해 다시 법무대신에 임명되었다가, 의정부 찬정을 거쳐 1905년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전권대사 이토를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끝까지 앞장서서 반대하였다. 이에 일제는 갖은 협박을 가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대궐 수옥헌 골방에 감금하고 본관을 면직시켰다.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뒤 곧 징계에서 풀려나 중추원 고문·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강제로 국권 피탈 후에 남작의 작위가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 칩거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李商在)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였으며, 그 뒤 민립대학기성회로 발전시켰다.

26) 박충원(朴忠元) 묘 및 신도비

지정번호	향토문화재 제26호
지정일	1989. 10. 21
시 대	조선시대
소재지	주교동
소유자	밀양 박씨 종중

묘는 주교동 능골마을에 정경부인 성산 이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봉분 주위의 석물로는 상석 1기, 장명등 1기, 동자상 2기, 문인석 2구가 있으며, 그 밖에 묘표와 신도비가 있다. 오석(烏石)의 묘표는 1958년에 건립되었다. 광해군 9년(1617) 2월에 건립된 구신도비는 대리석으로 되었으며, 높이가 180cm, 폭이 56cm, 두께가 27.2cm이다. 비문은 유근(柳根)이 지었고, 글씨는 김현성(金玄成)이 썼고 전자는 박희현(朴希賢)이 하였다. 그리고 오석의 신도비는 정조 19년(1795) 1월에 세운 것으로써 용수의 두부와 구단을 갖추고 있으며, 높이가 297cm, 폭117cm, 두께 52cm나

되는 대형물이다.

박충원(중종 21년(1507)~선조 14년(1581))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밀양. 자는 중초(仲初), 호는 낙촌(駱村)·정관재(靜觀齋)이다. 박조(朴藻)의 아들이다.

중종 23년(152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1년에 승문원에 올라 홍문관에 참여하였다. 다음해 검열이 되었고, 이어 설서·승정원에 전직되었다. 그 뒤 독서하라는 명으로 당후에서 대기하다가 장악직장이 되었다. 1534년에 예문관 봉교가 되었다가 전적이 되고, 이어 정언이 되었다. 다음해 이조 정랑·사간원 정언·이조 좌랑·헌납·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1537년에 병조 정랑으로 있다가 이조 정랑으로 옮기었다. 조부의 상을 당해 3년 뒤 다시 승문원 교검에 보직되었다가 영월 군수로 발령되었다. 이때 이 군에 3태수가 죽어나가 요담이 흉흉해 모든 사람이 이곳에 부임하기를 꺼렸으나, 박충원이 초연하게 행동해 괴괴한 소문이 사라졌다고 한다.

1545년 중국사신 영접사로 나가기도 하였다. 그 후 직장이 되었고, 이어 군자감 부정·사성·성천부사를 거쳐 중시에 발탁되어 예빈시정에 올랐고, 통례원 우통례 겸 교서관관교가 되었다. 명종 7년(1552) 제주(祭酒)로 있다가 해서(海西)를 안무(按舞)하였다. 1554년 성절사로 중국에 다녀온 뒤 형조참의가 되었고 1556년 세 번째 승정원에 들어갔다. 1558년 환성 우윤·병조 좌랑을 거쳐 밀원군 겸 홍문관 제학에 제수되었다. 이어 예조판서·사헌부로서 호남·호서를 안무하였다. 1564년 명종이 '대제학 병조판서 박충원'이란 10자를 친필로 하사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며, 저서로 『낙촌유고(駱村遺稿)』가 있다.



▶ 박충원묘

27) 강지(姜漬) 선생 묘

지정번호	향토문화재 제27호
지정일	1989. 10. 21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오금동
소유자	진주 강씨 중중

오금동에 있으며 묘를 중심으로 중앙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 등이 있고 그 좌우로는 망주석,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 옆으로는 1959년 봄에 세운 오석의